

56년 전통 살아났다

포항불교학생회 19일 재창립



11월 19일 포항불교학생회 재창립 법회에 참석한 학생들이 반아침경을 봉독하고 있다.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돈이요!” “사랑이요!”
 11월 19일 포항시 포교당 주립사(주지 종문 스님)에서 열린 불교학생회 창립 법회. 주립사 주지 종문 스님의 질문에 학생들의 명쾌한 답과 웃음이 터져 나왔다. 포항불교학생회가 문을 닫은 지 3년 만에 다시 열

린 학생법회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포항불교학생회의 맥을 잇는 자리여서 지역 신행단체 및 교사불자회의 관심이 높았다.
 1948년 6월에 창립해 주립사를 중심으로 56년간 전통을 이어오던 포항불교학생회는 지난 2002년 문을 닫았다. 과도한 입시경쟁 속에서 불교학생회 활동이 학교별

불교동아리 활동과 사찰별 활동으로 흩어진 것이 원인이었다.
 그러나 흩어진 학생회 활동마저 열악한 지원 속에서 대가 끊어질 위기에 놓이자 학생들이 다시 포교당 주립사의 문을 두드리면서 학생법회가 재창립하게 된 것이다. 전국적으로 청소년포교가 열악한 상황에서 포항불교학생회의 맥을 잇는 주립사

문 닫은지 3년만에 50여명 법회 열어 지역 신행단체·교사 불자회 지원 약속

불교학생회가 재창립되자 포항불교계는 기쁨과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토요일 저녁 7시, 늦은 시간인데도 유성여고, 세화여고, 장성고등학교 청소년 불자 50여명이 주립사 신행회실을 가득 메웠다. 포항불교학생회의 재건을 위해 열심히 헌신했던 교사불자회원도 법회를 지원하기 위해 참석했다.
 법문에 나선 종문 스님은 “진정 지혜로운 사람만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설했다. 스님은 “실체가 없는 순간의 행복과 불행에 집착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의 눈으로 세상의 변화를 보고 실제 없음을 깨달아 괴로움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했다.

또 경전에 나온 율법법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몸값이 되는 비결(?)도 소개했다. 법문에 이어진 다과시간, 포항불교학생회 58대 회장에 선출된 김지현(유성여고 2년) 학생은 “중요한 때 회장을 맡게 돼 부담스럽지만 선생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선배님들의 도움을 받아 불교학생회가 번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포항교사불자회 김숙자(경주교육청 상담실전문상담 순화교사)회장은 “오늘의 창립법회는 청소년 포교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주립사 불교학생회 지도교사를 맡게 된 황옥주 교사는 “입시경쟁으로 황폐해진 학생들에게 매주 주말 사찰에서의 참선, 다도, 부처님 말씀 등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도 제공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종문 스님은 “포항불교학생회를 재건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13개월 동안 실시해온 문화제 담사 등이 결실을 맺었다”며 “3년간의 공백을 극복하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054)247-4688

글·사진/포항=배지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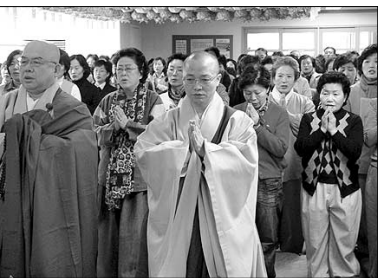
대구정법회 거사림회 창립40돌

대구의 대표적 거사림 신행단체인 정법회 거사림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을 비롯해 대승원 설호 스님과 지역신행단체장 회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19일 거사림 법당에서 기념법회를 가졌다.

이날 법회에서 정법회 거사림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행사비용을 절감해 불우이웃들에게 보태겠다”고 밝혔다. 또 학업과 신행활동에 충실한 학생을 선발해 장학금 50만원을, 소년소녀 가장 2명에게 성금 20만원을 전달했다.

배지선 기자

통도사 영축선원 개원1주년



기도와 교리 공부를 병행하며 도심포교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통도사 부산포교인 영축선원(주지 반산 스님)이 개원 1주년을 맞아 11월 24일 원산 스님(前 조계종 교육원장) 초청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주지 반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불교를 바르게 배워서 이웃과 자녀들에게 전할 때 그것이 곧 진정한 포교의 출발인 만큼 그 기초를 다지는 도량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산 스님은 법어를 통해 “아무리 많은 경전을 읽고 외우더라도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다고 할 수 없다. 한구절의 경전을 읽고 외우더라도 그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불자가 되도록 더욱 정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축선원은 영축불교대학교와 대승경전반, 참선대학 등을 운영하며 법화경, 육조단경, 천수경, 선이록반 등 경전 공부와 참선 수행을 일주일 내내 운영하고 있다. (051)752-0108

천미희 기자

함안 봉암사 20년 불사회향



경남 함안 봉암사(주지 만각 스님)는 11월 19일 20년 동안 이어져왔던 불사를 회향했다(사진).

1886년 5층 석탑 불사를 시작으로 대웅전, 종각 불사를 진행해온 법화종 봉암사

배지선 기자

는 이날 법화종 종정 성파 스님, 총무원장 해륜 스님, 진석규 합안 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범종각 낙성식 및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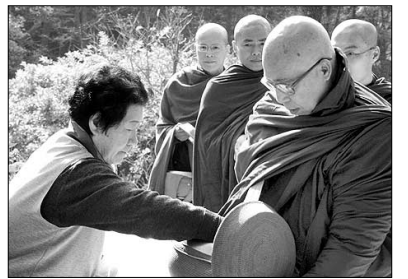
주지 만각 스님은 “도량 불사를 마무리 하면서 회향의 참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된다”며 “여러 불자님들과 더욱 정진하여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펴는 도량으로 불사공덕을 사회에 회향하겠다”고 말했다.

1943년 성신 스님이 창건한 봉암사는 1973년 철호 스님이 조탑 불사를 시작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임직하자 현 주지 만각 스님이 5층 석탑 불사를 완공했으며 1994년 대웅전 완공에 이어 2000년 종각불사를 시작해 2005년 2월에 종각 불사를 마무리했다.

1천여평 대지에 연 건평 8백평 규모의 불사를 회향한 봉암사는 초하루 법회와 지장법회를 중심으로 지역 불신 가꾸기와 지역내 불교 위상 높이기에 주력할 방침이다.

천미희 기자

미안마 우자필라 스님 태종사 방문



미안마 마하시 법사협회 회장 우자필라 사야도 스님이 부산 태종사(주지 진용)를 방문했다(사진).

11월 20-21일 양일간 공식 일정을 가진 우자필라 사야도 스님은 태종사에서 위빠사나 집중 수행을 하고 있는 대중들을 위한 문답 법회를 열고 21일에는 대중사 대중들이 공양 올리는 음식을 받아 공양하는 탁발 공양의식을 가졌다.

우자필라 사야도 스님은 1966년 양곤 마하시 사사나 센터에서 마하시 선사의 지도 아래 수행에 전념한 후 현재는 미안마 마하시 법사 협회 회장을 지내며 미안마 위빠사나를 세계에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천미희 기자

불자 성악가 정성민씨 독창회

부산지역 사찰합창단을 지휘하고 있는 불자 성악가 정성민씨의 독창회가 11월 21일 금정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열렸다.

특히 이번 독창회는 정성민씨가 지휘를 맡고 있는 흥법사(주지 심산)에서 주최한 행사로 찬불가를 중심으로 무대가 꾸며져 주목을 받았다. 불자 성악가가 개인 독창회를 열면서 찬불가 중심으로 무대를 꾸미는 것은 드문 일이기 때문이다.

“가곡과 찬불가의 밤”의 밤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날 독창회에서는 대행 스님 작사 ‘심종관문 일야보세’ 광덕 스님 작사 ‘님의 숨결’ 등 찬불가 가곡 민요 등이 공연됐다.

천미희 기자

사부대중 1080명 화합의 한마당

포항불교계 12월 3일 1080정진 대법회 개최

1인 10800원 나눔기금 모금도

포항불교사암연합회(회장 난승)가 12월 3일 오후 3시 포항실내체육관에서 1080정진 대법회를 개최한다. 이날 법회에서는 10-80세 사부대중 1080명이 모여 1080배 정진을 하고 이웃을 위해 1인당 10,800원의 기금을 모금하는 행사도 열린다. 1080정진대법회는 지난해 12월 15일에 열린 범불교대회도 영상물 상영에 이어 천

배지선 기자

해인사, 목조 비로자나불

12월 10일 학술강연회 열어

우리나라 현존 최고의 목조 부처님으로 판명된 해인사 목조 비로자나불의 역사적 의미와 예술적 가치를 규명하기 위한 학술강연회가 12월 10일 오후 2시 범보존학 해인사 보경당에서 열린다.
 ‘9세기 해인사 목조 비로자나불의 역사성과 예술성’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강연회에는 문헌학, 역사, 양식사, 재질사 등 각 분야의 연구자들이 발표하

실 예정이다.
 이화여대 강우방 교수는 조형적 특징과 양식사적 위치에 대해 발제하고, 동국대 김상현 교수는 명문 내용으로 본 신라양식과 해인사의 관계 및 조성배경에 대한 연구내용을 발표한다. (055)934-3000

배지선 기자

‘맑고향기롭게’ 우수상 수상

대구자원봉사대축제서

대구 불교시민단체인 (사)맑고향기롭게 대구지부가 대구시가 주최한 제4회 대구

“더불어 살아가는 참뜻 나누는 전시”

사회복지법인 범어사 큰스님선서화展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 쌍계사 조실 고산 스님, 영주암 회주 정관 스님 등 대덕 스님들의 선서화 120여점과 설봉 스님의 도자기 작품, 천마재활원 원생들이 만든 다구 2백점 등 수많은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인 전시회가 열렸다.

11월 17일부터 24일까지 국제신문 4층 문화센터에서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큰 스님들의 작품 외에도 금니사경 병풍과 선화, 선서화와 정만 스님, 유정 스님, 석공 스님, 지현 스님 등이 평소 아끼던 소장품을 일련에 공개했다.

4백여 점에 이르는 작품 수만점이나 이번 전시회의 의의도 남다르다. 수익금 전액이 복지기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17일 열린 전시 개막식은 사회복지법인 범어사 이사장 흥교 스님, 설동근 부산시교육감 등 3백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어 스님(부산 금정복지관장)은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위한 이번 전시회에 작품을 기증해주신 많은 분들의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자원봉사대축제에서 우수상 수상단체로 선정됐다.

대구시는 ‘사랑과 나눔으로 대구를 아름답게’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10월 12일부터 20일까지 총 135개의 자원봉사 팀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제4회 대구자원봉사대축제’ 심사결과와 시상장예인을 위하여 소리로 듣는 녹음 도서를 제작·보급한 (사)맑고향기롭게 대구지부를 우수상에 선

정했다고 11월 18일 발표했다.

(사)맑고향기롭게 대구지부는 1996년 창립 이래로 1천 여 명의 회원이 시가지예인을 위해 소리로 듣는 녹음 도서를 제작·보급하는 소리 봉사 외에, 소외된 이웃을 위한 무료급식, 떡 나누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매주 수요일 오후에는 시민을 위한 수요문화 무료강좌도 열고 있다.

배지선 기자

眞如聖地巡禮
www.sact.co.kr
02) 2076-9511~3
※ 해외여행 안내원 모집 (영어, 중국어, 일어 능통자 우대)

成道齋日(음 12월 8일)을 맞아 떠나는

부처님의 고향 “인도” 불교 성지순례

호텔식 식사, 특급 및 일급 호텔 숙박

- 4인 이상 월, 목, 일요일 항시 출발 가능(참가비용+5만원) | 항공: 인도항공 | 차량: 승용차 혹은 밴

1,990,000 9일

12/8, 15, 22, 29 1/5, 12, 19, 26

초특가

2,190,000 11일

12/11, 18, 25 1/1, 8, 15, 22, 29

초특가

• 여정 : 델리(1)-쉬라바스티(1)-룸비니-쿠쉬나가라(1)-파트나(1)-라즈기르-부드가야(1)-바라나시(1)-샤르나트-바라나시(1)-아그라-델리

• 여정 : 델리(1)-쉬라바스티(1)-룸비니(1)-쿠쉬나가라(1)-바이살리-파트나(1)-라즈기르-부드가야(1)-바라나시(2)-샤르나트-아그라(1)-델리

*특전 : 금강경 설법지 지원 정사, 부처님의 고향 카필라바스투의 쉬라바스티, 탄생지 룸비니, 최초의 불교 대학 나란다 대학, 열반지 쿠쉬나가라, 성지도 부드가야 마하보디 사원, 최초의 사찰 죽림 정사, 초전 법륜지 샤르나트, 아그라 및 델리 관광

아시아나 항공 전세기(15:30 출발/21:15 귀국)

日本 오키나와 평화기념공원 한국인 위령탑 추모법회

오키나와의 1월 날씨는 제주도의 4월 날씨와 같은 봄 날씨(벚꽃개화시기)

999,000 4일

1/4, 11, 18

단3회

• 여정 : 인천-오키나와(3)-인천
 • 특전 : 오키나와 평화기념공원 한국인 위령탑 추모법회 오키나와 사찰 순례 정수마을 오기미촌, 오키나와 전통 민속촌, 류큐성, 수리성, 오키나와 월드, 동남 식물 낙원, 해양 박물관, 미공군기지, 나기진조 성터 방문

전세계 할인항공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캐나다 일본항공(JAL) CX(캐세이퍼플)

일본/중국/동남아/미주 유럽/호주/뉴질랜드

TEL: 2076-9535

日本 北海道 불교 문화탐방	日本 남큐슈, 가고시마, 미야자키	中國 서안 북경 불교 문화 탐방	中國 상해/소주/항주 불교 문화탐방	中國 성도/낙산, 티벳 성지순례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불교 문화탐방
699,000 4일	729,000 4일	849,000 6일	599,000 4일	1,599,000 8일	999,000 5일
출발일 ▶ 12/5, 14	출발일 ▶ 12/11, 18, 25	출발일 ▶ 12/10, 17, 24	출발일 ▶ 12/6, 13, 20	출발일 ▶ 12/13, 20, 27	출발일 ▶ 12/9, 16, 23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24번지 고려빌딩 715호 / www.sact.co.kr / 관광사업등록 종로구청 제26002-1999-000045호

공통사항: 15명 이상 출발, 1급이상 호텔 이용, 1억원 배상 여행자 보험, 관광진흥기금, 전정 보철료, 유류할증료 포함, 국제 항공사 이용(마일리지 적립) / 기타의 일 운전자, 안내 인솔 팀 포함, <여행 불편 신고 전화> 02-2076-9500 >